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장 남 원*

- I. 머리말
- II. 高麗 壓出陽刻 技法의 淵源
- III. 國內 窯址 出土 壓出陽刻 靑瓷의 製作特徵과 生産樣相
- IV.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消費와 製作時期
- V. 맺음말—壓出陽刻 靑瓷의 工藝的 位相

I. 머리말

청자에 문양을 장식하는 작업이 보편화되는 고려 중기 요지 출토품 조사에서는 壓出陽刻 청자가 음각문을 시문한 청자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었으며 같은 시기 상감청자와 비교해도 그 생산 비율은 월등히 높았다. 강진 용운리 10호 요지에서 출토된 문양 있는 접시의 50% 이상에서, 부안 유천리 7구역 요지군 출토 有紋 청자의 40% 이상에서 압출양각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대전 구완동 요지에서도 다른 기법보다 압출양각이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

* 이화여자대학교 전임강사.

최근까지 청자 연구는 대체로 양식과 편년 작업에 집중되어 왔다. 그 가운데 압출양각 청자는 독립적으로 연구된 바 없었고, 다만 문양기법에 대한 소개나 중국 북방청자와의 관련 차원에서 간략히 언급되었을 뿐이다. 특히 고려 중기² 청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도 조형적 특징이나 변천과정, 생산 비중이나 기술적 특성 및 공예적 성격에 대한 관심은 상감청자에 집중되었고 압출양각 청자는 논외의 대상이었다.³

그러나 최근 20여 년간 축적된 발굴과 보고서 출간 성과에 힘입어 필자는 출토량이 많고 지역적으로 가장 광범한 분포양상을 보이는 압출양각 청자가 고려 중기 요업 성격의 일면을 밝혀 주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주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압출양각 청자의 기법적 연원과 국내 수용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고려 중기 가마터와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는 청자들을 중심으로 양식과 생산분포 및 편년을 재고함으로써 고려시기 청자 생산 현실에서 압출양각 청자가 가지는 공예적 위상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II. 高麗 壓出陽刻 技法의 淵源

1. '壓出陽刻'의 개념과 인식

壓出陽刻은 흙으로 만들어 구운 틀〔範〕⁴을 사용하여 내면 전체를 찍어 문양을 양각하는 기법을 표현하는 말로서 '壓出' 외에 '押出', '押印', '壓印', '壓型'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다.

그런데 '押'은 서지학이나 고문서 분야에서는 '뿌(서명하다)'의 의미를 지녀⁵ '手決'과

1 청자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 생산 확대에서 강진 유형이 모델이 되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압출양각 청자는 확산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張南原, 「'康津 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 231(韓國美術史學會, 2001), pp.77-100; 張南原, 「高麗 中期 靑瓷의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2003. 1), pp.30-40, pp.96-102; 본고, III장 2절 참조.

2 본고에서 언급한 도자사에서의 고려 중기 개념에 대해서는 장남원, 본고, 주1) 논문(2003), pp.200-205.

3 고려시대 압출양각 자기는 지금까지 독립된 주제로 논의된 바 없다.

4 여기서 '틀'을 '範[거푸집]'이라 하지 않고 '範[틀]'이라 한 것은 금속공예에서와는 달리 적어도 고려시대 청자 제작에서는 양각문양을 내기 위해 틀을 사용하되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거푸집을 만들어 鑄入成形을 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 《經國大典註解後集》禮典, 立法出依牌式條, 押.

함께 오랫동안 사용되었고⁶ 도자기에 '押印' 하는 것은 무늬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부각되지만 도장을 찍은 결과 문양이 양각이 되는지는 용어상으로 분명치가 않다. 실제로 통일신라시대 인화문 도기나 조선시대 분청사에서 보이는 印花紋은 소형의 施紋用 도장을 사용하여 하나 하나 찍어 기면 전체를 장식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문양은 오목한 음각(凹)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 近代期에 고무인을 사용하여 백자에 '壽', '福' 과 같은 평면적인 글자를 문양으로 찍어 넣던 것도 일종의 '印花' 라고 할 수 있는데 기법에서는 전혀 다르지만 용어상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또 '陽印刻' 이나 '押印(壓印)陽刻'이라는 용어도 의미상 전달은 되지만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기물의 내면이나 외면 전체를 문양인(紋樣印)이 아닌 문양틀(範)을 사용해 양각하는 기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⁷ 고려 중기의 양각청자는 기물의 내면 형태와 같은 모양과 크기의 문양틀 위에 성형된 기물을 올려놓고 기물의 외면 쪽에서 문양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문양이 양각(凸)되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압력을 주어 무늬가 양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기법을 "壓出陽刻"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한편, 압출양각 기법에 대해 연구자들은 대체로 청자 제작의 여러 장식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문양의 발달 측면에서 그 편년을 설정하는 정도로 다루어왔다. 高裕燮은 고려청자의 발달과정을 순청자와 상감청자로 나누고 양각청자를 순청자에 속한 하나의 기법으로 이해함으로써⁸ 청자를 순청자와 상감청자로 대별하는 구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崔淳雨에도 이어졌다. 최순우는 양각은 상감이 나오기 전 11세기 말까지 유행하였으며, 특히 12세기 중엽부터 1231년경까지는 상감청자의 전성기로 문양은 상감 일색이라고 보았다.⁹ 최순우의 견해는 문양기법의 발달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서 그 맥락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이는 생산지인 청자가마터의 퇴적층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로 시간적 선후관계와 동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압출양각 기법과 상감기법이 동시대에 발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였을 것이다. 姜敬淑도 고려 도자를 크게 素文과 象嵌으로 대별하고 소문 가운데 음각, 양각, 압출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가

6 박준호, 「手決(花押)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고문서연구』 20(한국고문서학회, 2002), pp.93-122.

7 물론 중국에서는 이들을 총칭하여 대체로 '印花'로 부르지만 국내 도자 연구 실정에서는 혼란의 우려가 있다.

8 高裕燮 著, 秦弘燮 譯, 『高麗靑瓷』(三省文化財團, 1977), pp.40-42.

9 『崔淳雨全集』 1(學古齋, 1992), pp.280-281.

운데 조각칼을 사용하는 경우와 도범을 사용하는 것을 각각 '陽刻' 과 '押出' 로 구분하였으며 압출무늬는 양각기법보다 섬세하거나 예리하지 못하고 틀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선이 무디게 된다고 하였다.¹⁰

鄭良謨는 틀을 사용하여 그릇 내면에 문양을 찍어내는 기법에 대해 型押陽刻¹¹ 또는 陽印刻·押印文·押出文·陽印刻印花文¹² 등 여러 가지 용어를 혼용하였는데, 陽印刻이 음각 문양보다 늦게 등장하며 해무리굽 완이 완전히 변형되어 새로운 형식의 대접이 등장하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그 시기는 11세기 이후가 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尹龍二는 양각기법을 11세기 후반 이후 북송과의 문물교류에서 받아들인 중국 도자의 기형과 문양이 고려 도자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¹³ 田勝昌은 용운리 10호 가마터 출토 보상당초문 압인양각 청자를 중국 耀州窯와 연관지으면서, 송대 11-12세기를 요주요 압인양각 기법의 전성시기로 보아 고려에서 압인양각 청자와 동반되는 청자 제작시기를 11-12세기로 추정하였다.¹⁴ 한편, 張南原은 압출양각 기법의 청자에 대해 그 제작기법과 편년 외에 일정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점과, 동시대 장식기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려 중기 생산 청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 공예적 성격에 주목하였다.¹⁵

2. 中國宋代 자기에 나타난 壓出陽刻 기법

압출양각 기법은 중국의 北方지역 여러 窯場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며, 점차 중국 전역으로 유행하게 되는 대표적 장식기법 중 하나이다. 그 가운데 北宋代 耀州窯에서 가장 발달하였는데 대체로 北宋 中期(1023-1085) 이후부터 北宋 晚期(1086-1127)에 이르는 시기에 본

10 姜敬淑, 『韓國陶磁史』(一志社, 1989), p.141.

11 『世界陶磁全集』18·高麗(小學館, 1978)

12 鄭良謨, 「高麗青磁」, 『高麗青磁名品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89), pp.271-272; 鄭良謨,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p.189-191; 정양모, 『고려청자』(대원사, 1998), pp.34-35.

13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p.227.

14 田勝昌, 「青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康津青磁資料博物館, 2002), pp.77-91. 그러나 요주요의 고고학적 층위에 따른 편년의 문제는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 異論이 있으므로 보고서상의 편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15 張南原, 주1) 『韓國美術史學會』, 2001), pp.77-100; 주1) 『博士學位請求論文』, 2003), pp.96-102.



도 1 中國陝西省耀州窯 출토, 陶範

격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문양은 折枝花紋, 禽魚紋, 昆蟲, 人物紋, 佛教關聯紋, 幾何紋 등 다양하며 기물 내면과 형태 및 크기가 같은 陶範을 사용하여 기물의 내면 문양이 도드라지도록 하거나, 또는 小形의 紋樣印을 사용하여 그릇 안팎에 양각문양을 찍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도1.¹⁷

이 기법은 요주요 외에도 陝西省의 梅邑窯, 河南省의 新安窯·臨汝窯·宣陽窯·內鄉窯·玉豐窯·鈞臺窯 등지로 전파되어 이른바 耀州窯系를 형성한다.¹⁸ 심지어 汝窯系에서도

北宋 哲宗 元祐元年(1086)과 徽宗 宣和七年(1125) 사이에 대량으로 생산되었고, 여요계에서 官窯로 추정되는 河南省 寶豐縣의 淸涼寺 요지에서도 요주요 타입의 압출양각 제품이 발견되었다.¹⁹ 뿐만 아니라 河北省 定窯나 磁州窯에서도 북송대를 기점으로 압출양각의 생산이 증가하며,²⁰ 정요에서는 金代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劉家模子”銘의 문양틀이 출토된 바 있고,²¹ 遼 지역 내 內蒙古 赤峰 缸瓦窯²²와 北京 龍泉 務窯²³ 등지에서도 백자에 압출양각 기

¹⁶ 중국에서는 문양틀을 사용하여 문양을 찍어내는 기법을 ‘印花’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 印紋陶器의 문양도 印花紋이라고 하는 등 문양기법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다.

¹⁷ 耀州窯에서는 실제로 내면이 평평한 형식의 접시나 碗 등에 사용했던 陶範이 발견되었다. 陝西省考古研究所, 『五代黃堡窯址』(北京, 文物出版社, 1997), p.213;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北京, 文物出版社, 1998);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汝州市汝瓷博物館·寶豐縣文化局, 『汝窯的新發現』(紫禁省出版社, 1991); 越文軍·越文斌 著, 『汝窯』(上海, 文匯出版社, 2002).

¹⁸ 馮先明 主編, 『中國陶瓷史(修訂本)』(上海古籍出版社, 2001), pp.382-358.

¹⁹ 본고, 주17) 참조.

²⁰ 北京大學考古學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管理所, 『觀台磁州窯址』(文物出版社, 1997), pp.480-513.

²¹ 陳曉捷·楊敏儀, 『耀州窯與容縣窯模具之比較』, 『中國古陶瓷研究』第8輯(中國古陶瓷學會 編, 紫禁城出版社, 2002), pp.41-46.

²² 路菁 著, 『遼代陶瓷』(遼寧畫報出版社, 2003), p.14.



도 2-1, 2-2 中國 廣西省 峴峒窯 출토,
“宣和三年(1121)”銘의 童子紋 陶範



러 점 발견되었다. 廣西 興安縣 嚴關요지에서는 “隆興元年(1163)”銘 派魚紋 틀이, 藤縣의 中和窯에서는 남송 “嘉熙二年(1238)”銘 원앙문 틀이 발견되었다. 北流縣 峴峒窯에서도 북송

법을 시문한 예가 있다.

중국 중남부에 위치한 四川省 磁峯窯의 2000년도 발굴에서는 盤에 사용하기 위한 틀이 출토되었는데 발굴지는 자봉요에서 도범을 사용하는 양각기법의 절정시기를 北宋 後期에서 南宋 中晩期, 즉 11세기 말 이후에 성행하여 13세기까지로 보았다.²⁴

중국 남방 廣東省의 廣州 西村窯, 惠州 東平大隊窯,²⁵ 廣西省 永福窯·潮州窯·嚴關窯·容縣窯·中和窯·峴峒窯, 江西省의 景德鎮窯, 杭州市 南宋官窯址²⁶ 등에서도 유행하여 남방까지도 그 영향이 광범하게 미쳤다. 특히 남방의 대표적 요주요계 가마인 서촌요에서는 북송 남송대까지 제작되며,²⁷ 광서성 容縣窯에서는 “元祐七年(1092)”銘 模具가 출토되었다.²⁸ 이 명문에는 “模花頭……”라는 구절이 있어 ‘꽃송이를 찍어내기 위한 模具’라는 의미로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광서성 일대의 요지에서는 명문 있는 範이 여

23 北京市文物研究所編, 『北京龍泉務窰發掘報告書』(文物出版社, 2002), p.286, p.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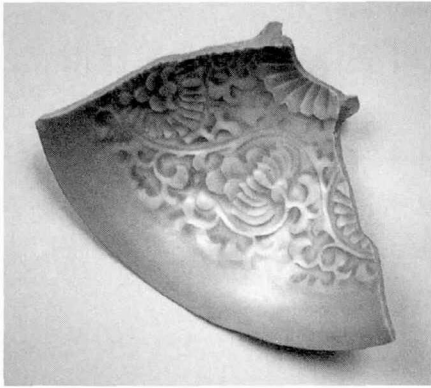
24 成都市文物考古研究所, 『2000年磁峯窯發掘報告』, 『成都考古發現』(科學出版社, 2002), pp.167-221.

25 廣東省博物館·香港大學馮平山博物館, 『廣東唐宋窯址出土陶瓷』(香港大學馮平山博物館, 1985), pp.44-45.

2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杭州市園林文物局, 『南宋官窯』(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96), 圖版43.

27 西村窯 皇帝崗 발굴 성과는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香港中文大學文物館合編, 『廣州西村窯』(香港, 中文大學中國文化研究所 中國考古藝術中心出版, 1987), pp.66-67.

28 肖清薇, 「容縣博物館藏宋代瓷碗印模」, 『文物』(文物出版社, 1994), 1期; 陳曉捷·楊敏儀, 주21)의 논문(2002), pp.41-46.



도3 耀州窯 출토, 壓出陽刻 菊唐草紋碗

“宣和三年(1121)”銘의 童子紋 틀과 도2-1, 2-2, 남송 “紹熙五年(1194)”銘의 원양문 틀이 발견되었는데 대개가 11세기 말-13세기에 제작된 것이었다.²⁹

그런데 남방 越窯系인 浙江省 寺龍口 窯址에서는 최후 층인 南宋 早期까지도 그릇의 내면에 압출양각 기법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어 고려에서 유행했던 압출양각 청자의 기종 및 시문기법이 북방 요주요계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³⁰

한편, 중국 요주요계 청자는 여주 원향사지, 성주사지, 신라왕경, 안성 봉업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 국내 주요 유적에서 발견된다. 菊唐草紋 도3과 牡丹唐草紋 등의 양각문양이 시문된 대접·碗·소형접시 등이 주류이며, 압출양각과 함께 요주요계 장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刻花紋 청자는 드물다.³¹ 중국산 청자들과 동반되는 국내 유물로는 康津系 압출양각 초기 유형들이 있다. 그러나 국내 각지로 압출양각이 확산되는 12세기 이후에는 중국산 압출양각 청자의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경덕진계 청백자의 유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³² 이는 국내 압출양각 청자 생산 초기단계에서 중국 요주요계와의 연관이 컸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기존 수요가 국산품으로 대체되면서 중국계 양각청자의 유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²⁹ 廣西지역 자료에 대해서는 廣西壯族自治區博物館 編, 『廣西博物館古陶瓷精粹』(文物出版社, 2002) 참조.

³⁰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p.235-239. 寺龍口窯址 발굴에서는 3기층(960-1022)에서 壓出陽刻에 해당하는 소위 ‘印花’ 기법이 등장하고 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고 문양의 위치와 내용이 고려와는 차이가 있다.

³¹ 上田秀夫, 「日本出土の耀州窯系青磁」, 『中國中原にひらいた名窯-耀州窯』(朝日新聞社, 1997), pp.169-178; 片山まび, 「中世・東アジアにおける象嵌陶器の再評價-中國陶磁を視座として」, 『青丘史學論叢』(韓國文化財團, 2002), pp.163-224.

³² 고려시기 국내 출토 송대 자기에 대해서는 林眞娥, 「高麗遺蹟 出土 宋代磁器 研究」(成均館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2003), pp.47-50.

Ⅲ. 국내 窯址 出土 壓出陽刻 靑瓷의 製作特徵과 生産樣相

압출양각 청자가 생산되었던 요장들 가운데 강진 용운리 10호, 부안 유천리 7구역, 부안 진서리 18호·20호, 대전 구완동,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 등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압출양각 청자 제작의 특징과 생산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製作特徵

1) 陶範의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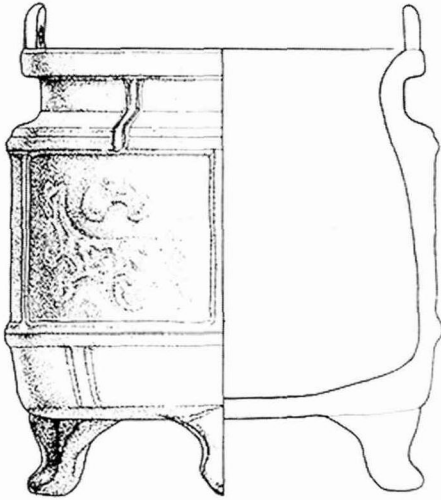
청자에 나타나는 압출양각 기법은 기물의 內面이나 外面을 문양틀(陶範)에 접합했다가 떼어 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물의 外面이나 기물 내면에 문양틀을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틀로 문양을 찍은 후 세부에 음각을 더하기도 한다.³³ 향로나 베개(枕)처럼 기물 외면에 압출양각문이 들어가는 경우도⁴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릇의 내면에 陶範을 사용한다.

耀州窯의 예를 통해 제작과정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각문양을 넣고자 하는 그릇을 성형하고 그 그릇의 내면을 高浮彫로 깎아 문양을 새긴다. 이 그릇에 유약을 입히지 않고 소성하면 紋樣範을 만들기 위한 기본틀(範模)이 된다.³⁴ 그 다음 기본 틀에 흙을 채워 넣은 후 건조시켜 떼어 내면 문양은 오목(凹)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유약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구우면 압출양각용 도범이 된다. 이렇게 구워 낸 도범에 무늬를 넣어 그릇을 밀착시켜 압력을 가하면 결과적으로 그릇 내면에 볼록(凸)한 문양이 생긴다. 그릇 내면에 문양을 넣기 위해서는 문양범 위에 그릇을 얹어 놓고 그릇의 바닥으로부터 압력을 가하거나, 그릇을 바로 놓고 그 위에 문양범으로 눌러 찍는 방법 등이 사용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문양범의 형태로 보면 前者가 더 보편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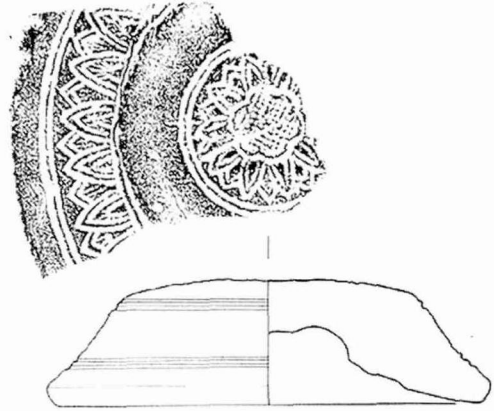
³³ 그 밖에도 陶範 문양이나 상형물을 찍어 내어 貼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陽刻의 효과를 내는 것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제외하였다.

³⁴ 宋代 耀州窯에서는 素燒의 문양범이 100여 건 출토되었다. 陝西省考古研究所·耀州窯博物館, 『宋代耀州窯址』(北京文物出版社, 1998), pp.471-497.

³⁵ 이때 기물 기벽의 외부에 압력을 가할 때의 손자국이 남게 되면서 기면이 고르지 않게 되므로 칼로 깎아 다듬은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음각연관문 등을 새겨 흔적을 가렸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 이외에 도범을 직접 물레 성형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



도 4 康津 龍雲里 10-II층 출토, 壓出陽刻 香爐



도 5 康津 龍雲里 10호 출토, 陶範

국내 요지에서는 아직까지 도범 제작용 範模(또는 母範)가 보고된 바 없으며 직접 문양을 찍기 위한 틀만 알려져 있다.³⁶ 강진 용운리 10호-II층에서는 접시의 내저와 내측면에 蓮瓣紋을 넣기 위한 초벌 틀이 출토되었고도5,³⁷ 강진 사당리 11호에서도 내저에 花紋이 있고 측면이 花形인 접시에 사용하기 위한 초벌 틀 1점이 출토되었다도6.³⁸ 또 부안 유천리 7구역에서도 초벌의 花紋접시용 틀로 추정되는 파편이 출토되었다. 이 파편에 대해 발굴자는 기종 불명으로 분류하였으나 유천리 7구역 'J-3형'에 해당하는 접시의 내측면과 수평으로 꺾인 전의 윗면에 무늬를 낼 수 있는 형태여서 압출양각용 틀로 추정된다도7.³⁹ 또 대전 구완동 청자 1호 가마에서도 대접과 접시의 내면에 찍기 위한 花紋碗 틀이 2점 출토되었다도8.⁴⁰

³⁶ 국내에서도 紋樣陶範의 제작을 위한 기본틀이 제작되었을 것이지만 유약을 입히지 않은 素燒였을 것이므로 전 반적으로 초벌구이가 시행하던 고려 중기 요지에서 이를 식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³⁷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圖版編(國立中央博物館, 1996), p.200, 도806; 『康津龍雲里靑磁窯址發掘調查報告書』本文編(國立中央博物館, 1997), p.207.

³⁸ 『康津의靑磁窯址』, 康津靑磁窯址 地表調查報告I(海剛陶磁美術館·康津郡, 1992), p.293; 康津靑磁資料博物館, 『고려청자와 종교』(2002), p.60.

³⁹ 圓光大學校 馬韓百濟研究所·圓光大學校博物館, 『扶安 柳川里 7區域 靑磁窯址群 發掘調查報告書』(2001), pp.218-219.

⁴⁰ 海剛陶磁美術館·大田光域市, 『大田 舊完洞 窯址-어청골 靑磁窯址·瓦窯址 發掘調查報告書』(2001), p.186.



도 6 康津 沙堂里 11호 수집, 陶範



도 7 扶安 柳川里 7구역 靑瓷窯址 출토, 陶範



도 8 大田 舊莞洞 靑瓷窯址 출토, 陶範



도 9 中國 河北省 磁州窯 出토, 陶範

한편, 그릇 내면에 문양들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도 외면 문양을 위해 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강진 용운리 10호 II층에서 출토되는 향로 가운데 기면의 중간에 두 개의 문양들을 맞붙였다가 떼어 낸 흔적이 남아 있는 예가 있다.⁴¹ 강진 사당리에서 출토되는 양각문 청자기와류가 이에 속하며, 중국에서도 磁州窯 觀台窯址에서는 향로나 화분 등의 외면에 양각

⁴¹ 본고, 주34(國立中央博物館, 1996) 도판편, p.198(도면784), p.465(사진784).

하기 위한 틀이 발견된 바 있다⁴².

틀을 사용하면 그릇과 문양틀을 꼭 맞게 접착하여 압력을 준 후 떼어 내야 하므로 틀과 그릇 내면의 크기 및 형태가 거의 같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압출양각용 틀을 사용하면 일정한 문양 디자인은 물론 그릇의 형태와 크기가 같은 기물을 동시에 여러 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정한 크기와 문양 및 質을 원했던 상황이라면 압출양각 기법을 사용하여 복제하는 것은 제작면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을 것이다.⁴³

나아가 陶範은 부피가 크지 않으므로 동일 지역 내의 다른 작업장이나 혹은 다른 지방으로의 전파도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경우 도범에 제작연월일과 용도, 제작 장인 집단의 명칭 등을 새기는 예가 있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 내에서 서로 다른 지역으로 도범이 전래될 수 있는 이동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⁴⁴ 앞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압출양각 청자를 종류별·기종별로 계통화시켜 본다면 도범의 전래에 따른 지역 간의 상관관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紋樣과 器形

압출양각 문양은 鉢의 경우 蓮唐草紋·牡丹紋·牡丹唐草紋·葡萄紋·花葉紋 등이 많으며, 碗에는 雲鶴紋·花葉紋·花唐草紋·蓮唐草紋·菊花紋·草花紋·牡丹唐草紋 등이 있다. 압출양각 빈도수가 가장 높은 접시류에는 蓮唐草紋·蓮花紋·蓮花折枝紋·芭蕉葉紋·牡丹紋·草花紋 등이 시문되었다. 또 음성 생리에서는 음각문과 양각문을 비교할 때 양각이 다른 지역과 비슷한 문양과 質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접이나 통형잔 외면에 시문된 음각 연판문 등은 조질이어서 양각문이 있는 청자가 비교적 고급으로 생산되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구완동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⁴⁵

국내에서 제작된 압출양각 청자를 강진 용운리 10호 퇴적층 출토품과 층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A, B, C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⁴⁶

A유형은 10-I층(10호 최하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요지 출토품 가운데는 알려진 것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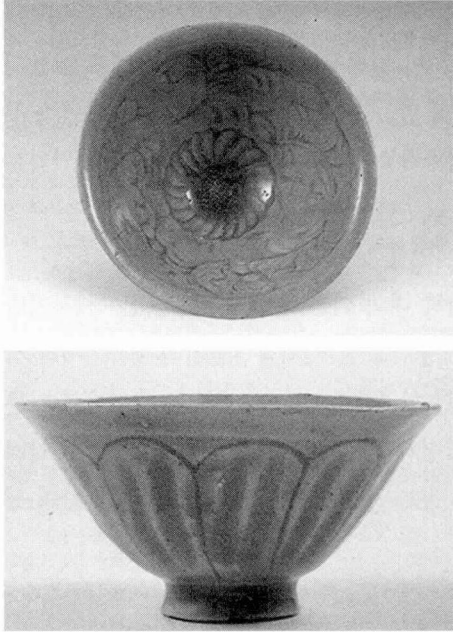
⁴² 北京大學考古系·河北省文物研究所·邯鄲地區文物保管所, 『觀台磁州窯址』(문물출판사, 1997).

⁴³ 張南原, 본고, 주1)(韓國美術史學會, 2001), pp.77-100.

⁴⁴ 본고, II장 2절 참조.

⁴⁵ 충북대학교박물관, 『陰城筌里 청자가마터』(2002).

⁴⁶ A, B, C 유형은 층위 개념과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서 결국 A→B→C로의 시간적 흐름을 말한다.



도 10 壓出陽刻 碗(A유형)

으며 전래되는 유물로 개인 소장인 碗이 1점 있다. 이 완은 외면에 고부조 蓮瓣紋이 있으며 내면에 압출기법으로 국당초문이 양각되었다⁴⁰. 요지 출토품이 아니므로 확인할 수 없으나 외면 고부조 蓮瓣紋의 퇴화된 모습이나 굽의 형태 등으로 보아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생산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⁴⁷

B유형은 '10-II-가' 층위에 해당하며鉢의 2개 형식, 碗의 2개 형식, 접시의 4개 형식 등 8개 형식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碗과 접시의 형식과 문양은 중국 요주요계 청자에서 나타나는 양상과 거의 흡사하였다.⁴⁸

C유형은 용운리 10호의 최상층에 해당하며 '10-II-나(모래빛음받침)'와 '10-II-다(규석받침)' 유형이 동시에 제작되는 층위이다.鉢의 5개 형식, 碗의 3개 형식, 접시의 8개 형식 등 총 16개 형식에서 사용되어 B유형에 비해 종류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접시를 예로 들면, B유형과 C유형에서 압출양각을 시문한 기종이 일치하는 경우는 U형식뿐이고 나머지는 B유형에서 C유형으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나타난 형태임을 알 수 있어서 C유형은 고려의 생산 및 소비현실에 적응하면서 발달해 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12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되는 고려 중기 유적에서는 중국산 요주요계 청자의 출토 비율이 줄어들고, 고려산 압출양각 청자가 증가하며 중국 景德鎮系 靑白瓷의 동반 출토가 증가하는 점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⁴⁹

그런데 압출양각이 확산되어 부안과 음성, 대전 같이 지역 수요를 위한 지방요장에서

⁴⁷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89), p.271.

⁴⁸ 본고, 주37(國立中央博物館, 1997), pp.95-159.

⁴⁹ 片山まび, 앞의 글, p.166 참조. 고려시기 국내 유적 출토 고려산 청자와 중국산 백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8일-19일, 日本貿易陶磁學會 필자의 발표문 「高麗前・中期靑磁の生産と流通」 참조.

생산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C유형에 포함되고 있으나, 강진 용운리 10호에서 보여 주는 기종과 기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음성 생리는 3개 기형에서 압출양각이 사용되며 대전 구완동은 4개 기형에서 시문되었는데, 그 기종과 문양이 용운리 10호 퇴적의 상층부에 해당하는 유물과 중복되고 있어서 강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고려 중기 요지 출토 압출양각 청자의 유형 비교 (용운리 10호 층위 기준)

유형	A(하층)	B	C(상층)
형식	10-I	10-II-가	10-II-나, 10-II-다
변조받침	백색내화토	백색내화토	모래빚음, 규석
기종	碗	鉢, 碗, 折腰접시	鉢, 碗, 향로, 배개 접시(折腰, 四角, 八角, 花形)
문양	花唐草	菊唐草, 蓮唐草	牡丹唐草, 蓮唐草, 雲鶴, 葡萄, 如意頭, 菊花, 花折枝 外
생산지역	不明	康津	강진, 부안, 대전, 음성, 강릉, 용인, 공주 外
시문기종	1개	8개	16개
편년 보조자료	한국식 해무리굽碗 동반	<표 3> 15 참조	<표 3> 1~14 참조
제작시기	11세기 후반	11세기 말~12세기 전반	12세기 중반~13세기 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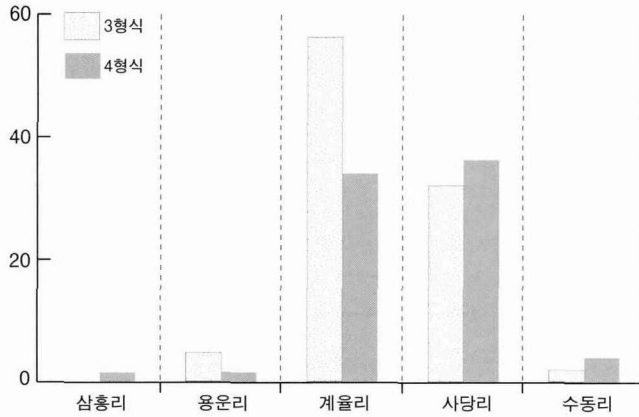
2. 生産 양상

강진 용운리 10호 발굴결과 II층에서 대종을 차지하는 鉢·碗·접시 6,814점(100%) 가운데 문양이 있는 것은 약 19.6%(1,335점)였다. 이 가운데 압출양각 기법은 鉢의 8.1%, 碗의 23.1%, 접시의 56.3%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진지역 지표조사에서는 압출양각 청자가 소위 '강진 III형식'과 'IV형식'에서 동반되는데, 이는 전체 188개 대상지 중 용운리의 약 50개소, 사당리의 약 50개소, 계율리의 약 59개소, 수동리의 약 6개소 등 160개소 이상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강진요지 個所數의 8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용운리 10호 I층(강진 II형식) 유형이 강진의 약 54개소에서 확인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용운리 10호 II층에 해당되는 계율리와 사당리 지역 요장의 개체수가 3배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이 시기 청자 생산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준다(표 2).

표 2 강진지역 내 압출양각 청자등반 요장의 비교



따라서 발굴이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용운리 10호 II층 시기에 해당하는 '강진 III형식'과 'IV형식'의 생산량이 급증하는 계율리와 사당리에서는 압출양각 청자의 생산 또한 증가했을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⁵⁰

한편, 부안 유천리 7구역(유천리 27, 28호) 출토 청자 3,524점(100%) 가운데 문양이 있는 것은 각 유구별 평균 27.1%(954점)이었고, 이 가운데 陰刻 4.3%(423점), 象嵌 3.98%(38점), 鐵畫·白畫가 10%(96점) 가량 되었다. 이에 비해 압출양각은 41%(397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⁵¹

음성 생리에서도 문양 중에는 음각 연판문 다음으로 압출양각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되며,⁵² 대전 구완동 1, 2호 청자 요지 역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압출양각 기법을 사용한 양각 당초문 계통으로 주로 대접과 碗, 접시에 나타난다.⁵³ 결국 압출양각 청자는 강진의 이른 시기 요업 중심인 삼흥리와 용운리를 제외하고는 강진 계율리·사당리, 부안 유천리·진서리, 음성 생리, 대전 구완동 등지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 고려 중

⁵⁰ 이상 강진지역 발굴 및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張南原, 본고, 주1)(2003, 1), pp.125-133.

⁵¹ 유천리 7구역 출토 청자에 관한 개체량 속성 분석은 유천리 보고서에 제시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하였다. 圓光大學校 馬韓 百濟文化研究所, 본고, 주39)(2001).

⁵² 충북대학교박물관, 『陰城篋里 청자가마터』(2002).

⁵³ 海剛陶磁美術館·大田廣域市, 『大田 舊完洞 窯址』(2001), p.76.

기 문양장식의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V.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消費와 製作時期

1. 國內外 遺跡出土 壓出陽刻 靑瓷

국내의 墳墓, 官廳, 住居, 城址, 寺刹 및 海底 등 유적에서 출토되는 압출양각 청자를 보면, 분묘에서는 석실묘이든 토광묘이든 압출양각 청자가 대체로 빠짐 없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문청자나 상감청자와도 동반되며 기종으로는 접시가 가장 많아 가마터에서 압출양각 기법이 접시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던 결과와 일치했다. 또 상감이나 음각기법을 사용한 청자가 함께 출토되는 점 역시 가마터의 층위 동반 관계에서 보여 주는 생산 현황과 같았다.⁵⁴

江華의 熙宗(1204-1211년 재위, 1181-1237) 碩陵(1237년 축조)이나, 京畿道 長湍郡 長道面 杜梅里의 明宗(1202년 沒 또는 1255년 再修築) 智陵에서는 각종의 고려 청자 및 중국 백자와 함께 압출양각 折腰접시가 출토되었다.⁵⁵

東海市 三和洞 고분에서도 강진 용운리 10호 II층 출토품과 형식 및 크기가 같은 壓出陽刻雲鶴紋碗(구경 15.8cm, 저경 4.3cm)이 壓出陽刻龍紋香爐와 동반 출토되었다. 이 외에 청자퇴주기 및 조질 백자류·중국산 청백자 등도 함께 출토되는데 국내산 청자의 문양과 변법, 기형 등은 13세기 희종 석릉 유물과 유사하고 중국산 도자기는 일러도 12세기 후반 제작품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국산 압출양각 청자와 중국 도자의 동반 출토 양상은 忠州 虎岩洞도¹¹,⁵⁶ 龍仁 佐恒里,⁵⁷ 청주 龍岩유적⁵⁸ 등지의 고분들에서도 비슷하였다.

坡州 瑞谷里 2號墓에서는 압출양각 접시편이 治平元寶(1064-1067)와 동반 출토되었고⁵⁹

⁵⁴ 본고, III장 2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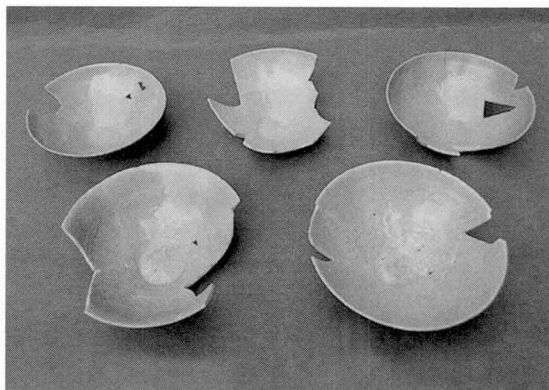
⁵⁵ 國立文化財研究所, 『江華碩陵』(2003).

⁵⁶ 忠州博物館, 『忠州 虎岩洞遺蹟 發掘調査報告書』(1998), 사진60, 61. 2-2호, 2-55호에서 압출양각 접시가 출토됨; 국립청주박물관, 『남한강 문물』(2001), p.182.

⁵⁷ 明知大學校博物館, 『龍仁佐恒里高麗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1994), 사진70.

⁵⁸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淸州 龍岩遺蹟(II)-本文』(2000).

⁵⁹ 『坡州 瑞谷里 고려벽화묘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1993), pp.208-210.



도 11 忠州 虎岩洞 古墳 출토, 靑瓷壓出陽刻 碗 도 12 坡州 惠陰院址 출토, 壓出陽刻 청자류

수원 석포리 고분에서는 靑瓷陰刻鳳凰紋碗, 靑瓷陽刻草紋碗 등이 政和通寶(1111-1117)와 함께, 또 中原 樓岩里 23호 석곽에서는 崇寧重寶(1102-1106)와 함께 압출양각 花紋碗이 동반되며,⁶⁰ 釜山 德川洞의 민묘 제1호에서도 상감청자와 압출양각 청자가 동반 출토되었다.⁶¹

한편, 官廳 및 住居·城址遺蹟들 가운데 대전시 大德區 法洞 건물유적에서는 崇寧重寶와 天禧通寶(1017-1021)가 인근 대전 구완동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압출양각 청자와 함께 발견된다.⁶² 仁宗과 그의 왕비가 후원 세력으로 등장하여 1144년경 이후에 번성하는 坡州의 惠陰院址에서는 압출양각 청자들을 포함한 고려 전성기의 고급 청자들이 주로 발견되었다도12.⁶³ 또 忠州 大林山城에서는 규석받침 압출양각 접시가 연판문 통형잔, 黑象嵌 瓶片과 함께 출토되었다.⁶⁴

安城 奉業寺址에서는 고려시대 건물지에서 翡色의 압출양각 접시, 연판문 대접 등이 崇寧通寶(1102-1106)와 함께 출토되며,⁶⁵ 경기도 驪州 元香寺址에서도 국내산 상감청자 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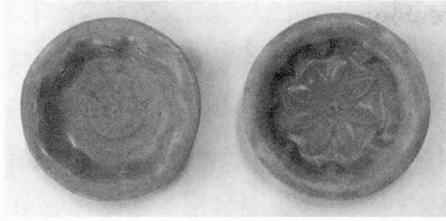
60 文化財研究所, 『中原 樓岩里 古墳群 發掘調査報告書』(1992).

61 東亞大學校博物館, 『發掘遺蹟과 遺物』(2003), pp.214-219.

62 漢南大學校博物館·大田光域市都市開發公社, 『大田 法洞 建物址』, 漢南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第11冊, 2002; 이은창·정광용·강형태, 『송촌동 문화유적의 전사이전과 출토유물의 비교연구』, 학술조사보고서 제3집(대전보 건대학박물관·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997).

6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과주 해음원지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2001년 1차, 2002년 2차, 2003년 3차).

64 상명대학교박물관·충주시, 『忠州 大林山城 정밀지표조사 보고서』(1997), pp.130-136.



도 13 驪州 元香寺址 출토, 壓出陽刻 소형접시



도 14 群山 飛雁島 海底 引揚, 壓出陽刻 청자



도 15 日本 福岡 鴻臚館遺跡 출토, 壓出陽刻 소형접시

및 수입산 청백자 접시와 함께 압출양각의 소형 접시가 여러 점 일괄 출토되었다^{도13, 66}

彌勒寺址에서는 출토된 고려 도자 가운데 陽刻기법을 사용한 것이 17%에 달하여 陰刻 9.2%, 白畵 [堆花] 1.7%, 象嵌 4.4%, 鐵畵 0.1%와 비교하여 가장 많았고,⁶⁷ 靈巖 天皇寺址⁶⁸ 와 公州 水源寺址,⁶⁹ 居頓寺址,⁷⁰ 泗川의 本村里 廢寺址⁷¹ 등의 사찰에서도 각각 압출양각문이 있는 대접과 화형접시, 折腰접시가 음각연관문 및 철화문 청자 등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다

65 백중요, 「안성 봉업사지 발굴조사」, 『97京畿道博物館 發掘調査概要』(경기도박물관, 1997), pp.77-100; 京畿道博物館, 「安城 奉業寺址 發掘調査 현장실명회자료」(1998); 경기도박물관·안성시, 『奉業寺』(2002).

66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道路工事, 『元香寺』(2003).

67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도판편)(1989); 전라북도 익산지문문화유적 관리사업소, 『미륵사지유물전시관』(1997).

68 順天大學校博物館, 『영암 월출산 천황사지 2차 발굴조사 약보고』(2000).

69 公州大學校博物館·忠清南道公州市, 『水源寺址』(1999).

70 原州市·翰林大學校博物館, 『居頓寺址發掘調査報告書』(2000).

71 慶尙大學校博物館, 『泗川 本村里 廢寺址』(1997).

른 자기류들과 비교하여 포개 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고급으로 나타났다.

근래 群山 飛雁島 인근 해저에서는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이루어진 탐사와 5차의 발굴조사로 총 3,177점의 도자기가 수습되었다. 기종은 발·대접·접시·통형잔 등 다양하였는데, 특히 압출양각 牡丹紋鉢과 花唐草紋折腰접시 등이 陰刻鸚鵡紋대접, 陽刻蓮瓣紋筒形盞, 象嵌紋盒 등과 함께 수습되었으며, 기형과 기종·문양·성분 분석 등을 통해 부안 유천리 제7구역 도요지 출토품과 유사함이 확인되었다도14.⁷²

한편 중국 浙江省 杭州市 南宋墓에서는 靑瓷壓出陽刻花紋碗 2점이 “紹興十九年(1149)”銘 銅印과 함께 출토되며,⁷³ 日本 福岡의 鴻臚館유적에서는 1048년 燒失層 위쪽의 한국식 해무리굽 완 출토층 위에서 용운리 10-II-가 유형에 해당하는 고운 백색내화토를 받친 靑瓷壓出陽刻 碗이 출토되고 다시 그 위층에서 모래빛을 받침을 받친 壓出陽刻花形접시(용운리 10호-II-나 접시 H식에 해당)들이 출토되었다도15.⁷⁴ 對馬島 大石原 유적에서도 모래 섞인 내화토 받침의 壓出陽刻靑瓷접시들이 陰刻紋 팽이형잔, 화형접시 등과 함께 출토되는데, 12세기로 비정되는 중국 福建省 백자와 공반되고 있어 鴻臚館 출토 고려청자의 출토 층위와 일치하였다.⁷⁵ 또 木坂 海神社 彌勒堂址에서도 고려산 壓出陽刻紋접시가 蓮瓣紋碗·易象嵌唐草紋碗 등과 동반 출토되었다.⁷⁶

2.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製作時期

고려 중기에 압출양각 청자의 제작시기와 관련하여 앞장에서 살펴본 유적 출토품들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72 국립해양유물전시관·전라북도, 『群山 飛雁島 海底遺蹟』(2004).

73 耿宝昌, 「閑話朝鮮高麗靑瓷」, 『博物館研究』(吉林省博物館, 1985-1983), pp.91-94; 馮先銘, 「中國出土朝鮮·伊郎古代陶瓷」, 『中國古代陶瓷論文集』(紫禁城出版社, 1987), pp.329-330; 陸明華, 「略談上海博物館所藏高麗靑瓷」, 『文物』(文物出版社, 1988年 6期), pp.80-85; 김재열, 「중국으로 건너간 고려자기」, 『湖巖美術館 研究論文集』4號(1999), pp.16-35.

74 森本朝子·片山まび, 「博多出土の高麗·朝鮮陶磁分類試案」, 『博多研究會誌』제8호(2000, 9), pp.41-75. 번조반침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張南原, 본고, 주2)의 논문(2003, 1), pp.68-74.

75 上縣町教育委員會, 『大石原遺蹟』, 上縣町文化財調査報告書 第1集, 平成 8年. 일본 출토 고려 청자의 편년은 片山まび, 「九州地域에서出土된高麗靑磁에 대하여-초기자료에 관한 편년문제를 중심으로」, 『對外交渉으로 본高麗靑磁』, 韓·中·日 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집(강진청자자료박물관, 2003), pp.43-76.

76 福田一志, 『長崎縣島嶼部における高麗靑瓷』, 大阪市學藝員共同研究 심포지엄발표집(2001), pp.53-55.

표 3 주요 유적 출토 압출양각 청자와 편년 보조자료

	유적	유물	편년 보조자료
1	熙宗 碩陵	靑瓷壓出陽刻花紋접시	熙宗 1237년 沒
2	明宗 智陵	靑瓷壓出陽刻花紋접시	明宗 1202년 沒, 智陵再修築 1255년
3	忠州 虎岩洞고분	靑瓷陽刻草紋鉢(2-2호분)	嘉熙通寶(1237-?)
4	청주 龍岩유적	靑瓷壓出陽刻花紋접시	紹聖元寶(1094-1097)
5	坡州 瑞谷里고분	靑瓷壓出陽刻접시	政和通寶(1111-1117), 治平元寶(1064-1067)
6	수원 석포리고분	靑瓷壓出陽刻草紋碗	政和通寶(1111-1117)
7	中原 樓岩里고분	靑瓷壓出陽刻花紋碗	崇寧重寶(1102-1106)
8	天安 長山里고분	靑瓷壓出陽刻접시	淳熙元寶(1174)
9	대전 法洞 건물지	靑瓷壓出陽刻접시	崇寧通寶(1102-1106), 天禧通寶(1017-1021)
10	本村里寺址	靑瓷壓出陽刻花紋접시	“甲寅年造資福寺”銘瓦(1014, 1074)
11	奉業寺址	靑瓷壓出陽刻花紋접시 靑瓷壓出陽刻花紋대접	崇寧通寶(1102-1106)
12	元香寺址	靑瓷壓出陽刻花形접시	四川省 遂寧市 金魚村 출토 청백자와 동일형식 접시 동반(13세기) 용운리 10-II층 청자 동반
13	坡州 惠陰院址	靑瓷壓出陽刻葡萄紋鉢 靑瓷壓出陽刻花紋접시	1122년 원공, 1144년 《惠陰寺新創期》
14	浙江 杭州 南宋墓	靑瓷壓出陽刻花紋碗	紹興十九年(1149)銘 銅印
15	福岡 鴻臚館	靑瓷壓出陽刻花紋花形접시	1048년 소실 층위 윗쪽 (한국식 해무리굽 완 → 용운리 10-II-가/ B식 碗 용운리 10-II-나 / H식 접시

동반 동전 및 유물의 연대를 고려하면 대체로 11세기 후반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음은 물론 12-13세기까지 제작이 계속되고 있었다. 한편, 국내 유적 출토 주요요산 청자는 刻花紋 계열보다는 대부분이 도범을 사용한 압출양각류이며, 기형도 완과 접시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⁷⁷

따라서 강진 용운리 10호의 층위를 기준으로 보면 국내 압출양각의 개시시기는 용운리 10-I 유형 청자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며, 그 다음 시기에 해당하는 층위인 10-II-가 유형 시기에 본격화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교롭게도 10-II-가 유형 청자는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의 소멸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⁷⁷ 林眞娥, 본고, 주 32)의 논문.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 제작단계의 동반 생산품들은 해무리굽 碗類를 비롯하여 대개가 중부지방의 초기청자로부터 기형 변화가 연결되는 동시에 銅器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⁸ 그런데 중국식 옥벽저계 청자완을 생산했던 초기 청자 시기 및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 제작시기까지의 요지 생산품들 가운데 압출양각 자기가 동반 생산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窯址에서 출토된 바 없고, 유적 출토품 중에서도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류와 동반되는 예가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그 개시 시기는 11세기 말 이후-12세기 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⁷⁹

거란의 침입 후 공식적으로 단절되었던 고려와 송은 11세기 후반에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양국의 공식관계가 활성화되는 1071-1126년 사이에 고려는 宋을 中華로 인식하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였고,⁸⁰ 睿宗과 仁宗의 '華風'에 대한 흥미⁸¹는 고려로 하여금 송의 선진문물 수용과 유교 이념에 입각한 禮制정비를 본격화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⁸² 따라서 11세기 말 중국 내에서 가장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耀州窯系 압출양각 기법의 급속한 국내 전래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물론 고려와 송의 단교기간에도 중국 상인의 왕래나 민간의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국가 수공업체제 아래 운영되던 康津 瓷器所는 국가 간 공식교류 단절기간에 새로운 중국 도자의 유행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 생산품들을 위주로 하는 점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11세기 말 이후에는 그 동안 한국식 해무리굽 완을 대량으로 생산해왔던 요장들이 새롭게 북송대 도자의 기형과 문양장식 등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조형과 기법을 도입한 청자를 생산해 냈을 것이고 이때, 당시 중국 전역에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었던 요주요계 압출양각 기법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된 것이라고 본다.

78 이는 이미 중국에서 소멸된 玉璧底系碗이 중국과 다른 한국식 해무리굽 완으로 대량 생산되고 이와 동반되는 다른 기종이 이전 시기 중부지방 초기 청자에 그 祖形을 두고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李鍾玟, 「始興 芳山洞 初期青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호 (韓國美術史學會, 2001. 3), pp.65-98; 張南原, 본고, 주1(2003. 1), p.20.

79 李鍾玟은 한국식 해무리굽 청자의 중심시기를 11세기 3/4분기로 보았으며, 11세기 말경이면 소멸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다. 李鍾玟, 「韓國의 初期青磁 研究」, 弘益大學校大學院 美術史學科 博士學位請求論文(2002. 12), pp.192-197.

80 『高麗史』 卷9, 文宗 32年 7月 乙未, “乙未, 安燕等, 還, 王, 附表謝之, 且自陳風痺, 請醫官藥材, 時與宋絕久, 燕等, 初至, 王及國人, 欣慶除例, 贈衣帶鞍馬外, 所贈金銀·寶貨·米穀·雜物無算……”

81 『高麗史』 卷14, 睿宗 10年 7月; 睿宗 14年 4月.

82 박종기, 「예종대 정치개혁과 정치세력의 변동」, 『역사와 현실』 제9호(한국역사연구회, 1993), pp.48-52.

압출양각 기법은 국내 개시 이후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 충북 음성 생리, 대전 구원동, 용인 보정리, 강릉 사기점골, 공주 신영리 등 전국적인 확산으로 가마터에서 량과 質에서 압출양각이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10-II-나, 10-II-다 유형을 생산하던 시기이다. 용운리의 10-II-나, 10-II-다 유형 청자는 용운리 10호 요지의 최상층에 해당되며 유적의 유물 출토 상황으로 볼 때 이들 층위에서 생산되던 압출양각 청자의 제작도 13세기 전·중반까지 계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³

V. 맺음말—壓出陽刻 靑瓷의 工藝的 位相

지금까지 고려 중기 압출양각 청자의 성격을 공예기법적 연원과 생산분포 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鉢이나 접시처럼 형태상 내면보다 구연이 넓고 벌어져 문양틀(陶範)을 사용하기 편리한 기종에서 사용되었던 압출양각 기법은 일정한 규격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크기와 문양이 일정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12세기 중반 이후-13세기 전·중반경의 요장에서는 문양 가운데 음각 다음으로 많은 비율로 생산되었다. 또한 지방의 소규모 요장들에서는 다른 문양 장식보다도 압출양각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자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瓷器所였던 康津의 생산 모델이 다른 지역 가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되는데, 압출양각 기법은 같은 규격의 문양틀을 사용함으로써 강진이나 부안만큼 노련하게 문양을 시문할 수 있는 장인이 없었던 가마에서도 비슷한 조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공예 기법상의 장점 때문으로 여겨진다.

압출양각 청자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내측면에 화려하고 섬세한 花紋을 시문함에 따라 거의 疊燒하지 않았고, 문양이 없는 기물의 위쪽에 놓게 됨으로써 다른 기법을 사용한 청자에 비해 같은 가마 또는 서로 다른 지역 생산품 간에 비교적 일정하게 良質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기법은 중국의 耀州窯나 定窯 등지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었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⁸³ 용운리 10호 II층의 '가' (백색내화토 받침), '나' (모래빛음 받침), '다' (규석받침) 유형 중 '가' 유형이 아래에서, '나', '다' 유형은 최상층에서 나타나며 고급품과 일반품의 차이로 이해된다. 張南原, 본고, 주1)의 논문(2003. 1), pp.68-74.

청자의 기종과 문양들은 요주요계와 더욱 밀접한 것으로 생각된다.

강진 용운리 10호 생산품을 기준으로 볼 때 10-II층위에서 유행하였는데, 국내외 여러 유적의 고고학적 층위 관계와 동반유물의 편년으로 보아 용운리 10-II층위는 대개 11세기 말 경부터 13세기 전·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국내에서 宋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소멸기)가 한국 내 압출양각 기법의 개시 시점과 맞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법은 국내에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문양과 기형 등에서 중국 요주요계 양식을 따랐으나 점차 독자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고려의 고유한 양식을 이끌어 갔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압출양각 청자는 고려 중기에 청자 제작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생산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복제와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는 공예 본연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태토와 유약, 번조기술이 강진·부안과 같은 중심 요장에 비해 부족했던 지방의 요장에서도 최고급품을 생산했던 康津청자의 조형과 형식이 가장 잘 유지되었던 부분이 바로 압출양각 청자였음을 상기하면서 고려 중기 청자생산에서 갖는 공예적 위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壓出陽刻(Molded Relief Design), 陶範(Mold), 耀州窯(Yaozhou-Wares), 康津類型(Gangjin Type), 複製(Repeated Impressing)

▣ 투고일 2004년 7월 16일 | 심사일 2004년 7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10일 ▣

국문초록

고려 중기(11세기 말-13세기 전반) 청자의 제작에서 사용된 문양장식 방법은 음각, 상감, 압출양각, 철화, 투각 등 매우 다양하나 지금까지 주로 상감기법을 대표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인식해 왔고 연구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청자에 문양을 장식하는 작업이 보편화되는 고려 중기 요지와 소비유적에서는 압출양각 기법을 사용한 청자가 음각문 청자 다음으로, 또는 지역에 따라 더 많은 비율로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

예로서 왕실과 관공서, 주요사찰 등에 용품을 납품하던 강진지역의 용운리 10호 가마에서는 문양이 있는 접시 가운데 50% 이상에 압출양각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부안 유천리 7구역의 경우는 문양 있는 청자의 40% 이상에서 압출양각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나아가 지방에서 소규모로 운영되었던 대전 구완동이나 음성 생리 같은 곳에서는 다른 기법보다 압출양각이 월등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압출양각 기법은 주로鉢이나 접시처럼 형태상 내면보다 구연이 넓고 벌어져 문양틀(陶範)을 사용하기 편리한 기종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고려 중기에는 이처럼 일정한 규격의 틀을 사용함으로써 크기와 문양이 일정한 제품을 전국 각지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압출양각 기법이 최적의 공예기법으로 채택되었다.

압출양각 기법은 같은 규격의 문양틀만 있으면 시도할 수 있는 기법이므로 강진이나 부안만큼 숙련된 장인이 상주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들 지역과 조형적으로 유사한 청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예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수공업품 생산 확대와 청자의 수요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국가 공납품을 생산하던 최고급 가마인 康津지역의 생산 모델이 다른 지역 가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된다.

압출양각 청자의 대부분이 내면 전체나, 내측면 등에 공통적으로 화려하고 섬세한 花文을 시문하였으므로 그 문양을 살리기 위해서 燒造時에 그릇 위에 다른 그릇을 포개는 疊燒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문양이 없는 기물의 위쪽에 놓거나 다른 그릇들보다 가장 위쪽에 놓게 됨으로써 문양이 없는 청자에 비해 같은 가마 내에서나 또는 서로 다른 지역의 생산품 간에서도 비교적 일정하게 고급한 質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기법은 중국 북송 후반부터 남송대에 걸쳐 耀州窯(Yaozhou Yao)系나 定窯(Ding Yao)系에서 주로 사용되어 중국에서도 남북방에 걸쳐 가장 광범하게 나타나는 장식이다.

국내에서는 강진 용운리 10호 생산품을 기준으로 10-II층위에 해당하며, 국내외 유적들의 고고학적 층위 관계와 동반 유물의 편년으로 보아 대개 11세기 말경부터 13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한국식 퇴화해무리굽' 碗의 생산이 끝나는 시점, 즉 宋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중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우리나라 압출양각의 개시 시기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기법은 국내에 정착한 이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고려의 고유한 양식을 이끌어 갔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상감기법 같은 고급 장식기법을 실현할 수 없었던 지방요지에서는 더 오래 동안 지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압출양각 기법이 고려 중기에 청자 제작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어 생산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가 공납품을 생산하던 요장이나 지방수요를 감당하던 요장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태도와 유약, 번조기술 등에서 다소 격차가 있는 요지들에서도 당시 최고급품을 생산했던 康津청자의 형식과 조형에 가장 근접하게 생산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려 중기의 청자생산에서 압출양각 기법이 공예적 특성의 하나인 대량생산을 위한 '複製'에 가장 적합한 기법으로 채택되고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압출양각 청자의 공예적 위상에 대해 새롭게 주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Mid-Goryeo Celadons with Molded Design

Chang Nam-won

During the mid-Goryeo period (late 11th century–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when decoration on celadons became commonplace, relief design created by molds or molded design, was employed most frequently on celadons after the incision of decoration. This was not just the case of the major kilns in areas such as *Gangjin* (康津) and *Buan* (扶安), but the small local kilns also revealed that molded design was the most popular among decoration methods. More than 50% of the plates from kiln no. 10 at *Yongun-ri* (龍雲里) in *Gangjin*, and more than 40% of the decorated celadons from kiln no. 7 at *Yuchon-ri* (柳川里) in *Buan*, comprise the molded design. Moreover, it has been reported that celadons with molded design con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among those from kiln sites in *Guwon-dong* (舊莞洞), Taejon, and in *Saeng-ri* (筮里), Umseong.

Molded design was used on vessels with a wide, open mouth so that the design mold could easily be impressed. The use of a standard mold enabled the mass-production of the same shape and style.

This preference for celadons with molded design appeared as the celadon from *Gangjin* kiln celadons were established as a standard model for other regions. It appears that the craft-like characteristic of this type enabled potters who were not as those of capable as the *Gangjin* and *Buan* kilns, to use the same standard design mold, and thus to produce a similar decorative effect.

Celadons with molded design presented the decoration either on the entire inside or on the internal walls. Other pieces were not stacked on this type, but instead this type was placed on top of stacks. Therefore, the objects were able to maintain higher quality than other objects from this kiln or those from other kilns.

Used extensively among *Yaozhou-ware* (耀州窯) and *Ding-ware* (定窯), this method was particularly popular in the 10-II stratum kiln no. 10 at *Yongun-ri* in *Gangjin*. From the archaeological evidence and chronological comparison with the finds from other sites, the stratum appears to belong to the period between the late 11th century and the first half of the 13th century. Thus, when the production of the tea bowls with pi-shaped foot ring came to a close, and when the normalized relationship with Song China brought forth a new cultural wave, Korean celadons began to be decorated using molds. Once established in the peninsula, this decorative method, developed independently as a distinctive Korean design.

Celadon with molded design made use of the craft-like quality of repeated impressing and mass-producing as celadon production sprea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The craft-like quality of the celadon with molded design enabled the maintenance of the *Gangjin* kiln shape and style despite the low quality of the clay body and glaze, and the imperfect kiln technology of other local kilns.